

간호학과 학생과 비간호학과 학생의 미세먼지 인식차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Fine Dust Cognition Difference Between Students in Nursing Science and Students in Non Nursing Science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4조
고정아, 김명선, 김형경, 박연옥, 염아영, 이슬이, 정은영, 조수인, 최윤희
지도교수: 반금옥

1 연구의 필요성

- 높은 인구밀도,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단위 면적 당 미세먼지 농도 증가
-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걸러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염증반응이 기도, 폐, 심혈관, 뇌 등에서 발생하여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질환 등이 유발
- 간호학과 대학생은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미세먼지 관련 인식, 지식, 예방활동의 실태 파악 및 관련요인의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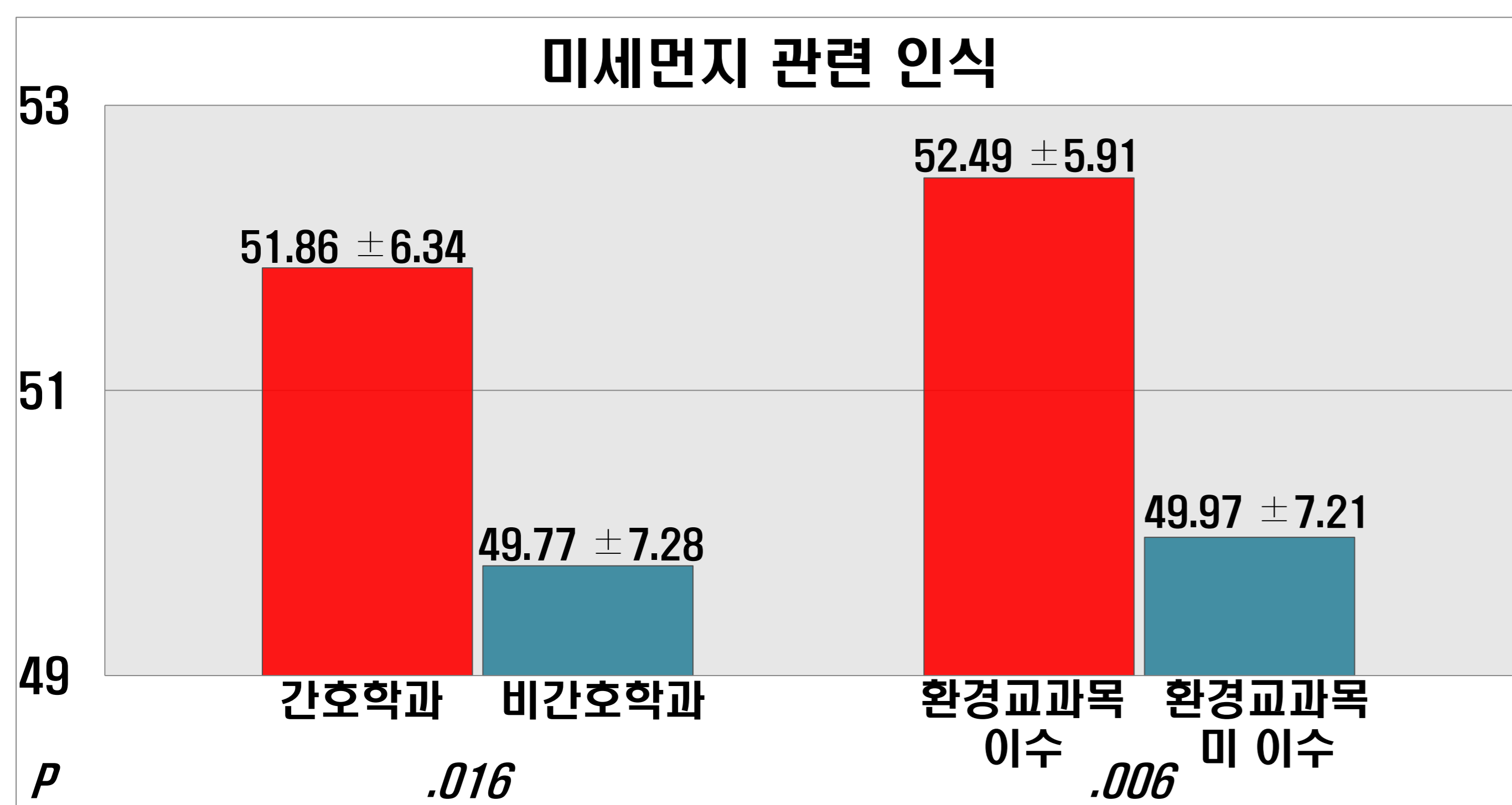
2 연구 목적

-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파악
- 간호학과와 비간호학과의 미세먼지 관련 인식, 지식, 예방활동 비교
- 환경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인식, 지식, 예방활동 비교
- 미세먼지에 관련 인식, 지식 및 예방활동 간의 관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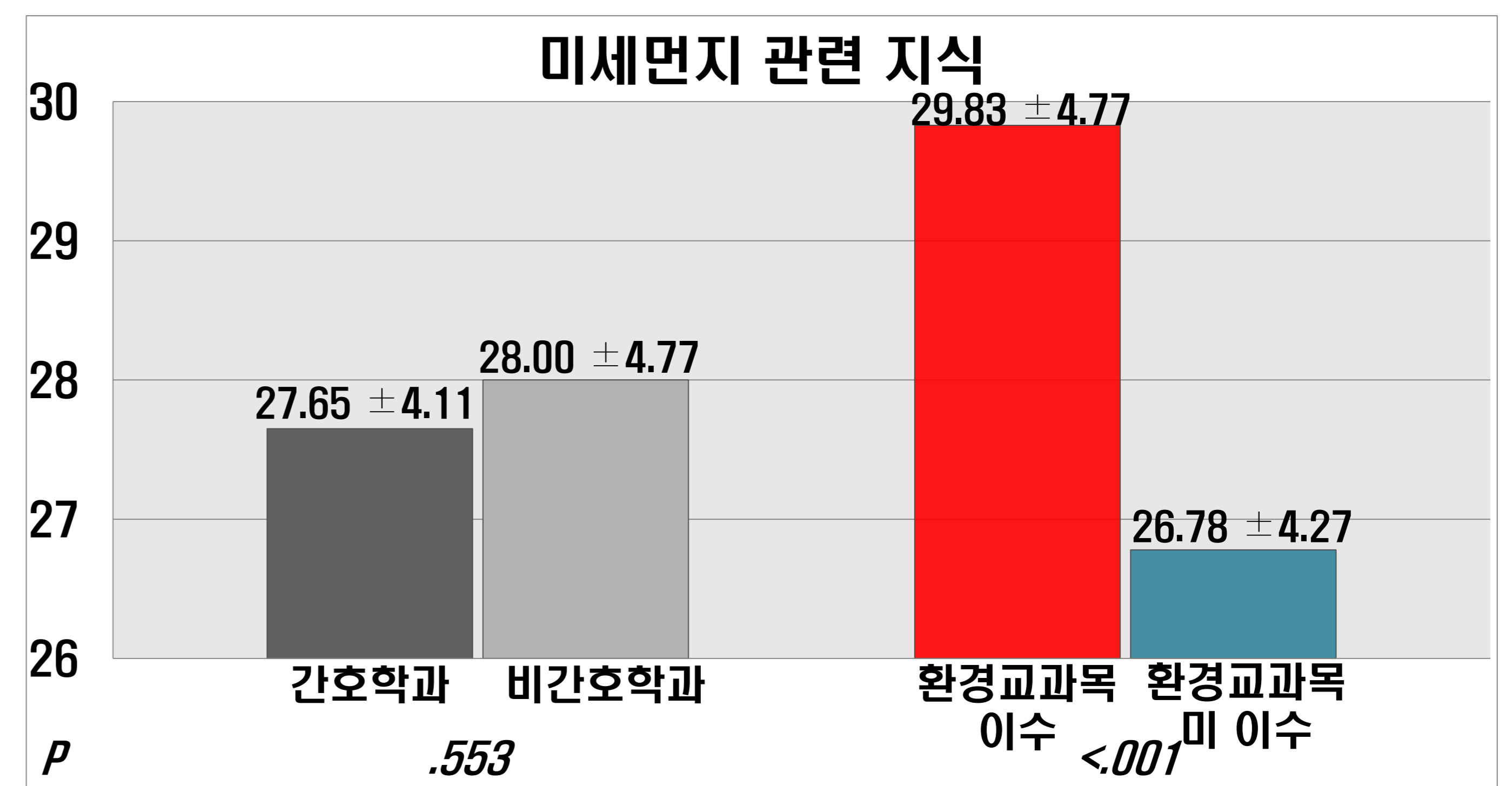
3 연구방법

- 연구 설계 : 서술적 조사연구
- 연구 대상 : G*Power 3.1.9.2: 128명 요구
: 충청북도 소재 4학년 대학생 재학생 252명
- 수집 기간 : 2017. 06. 19 ~ 06. 30 (온라인 설문)
- 자료 분석 방법 : SPSS 21 program 이용(기술통계, 독립t-test, 상관관계)
- 연구 도구 : 인식(5점 척도 13문항) Cronbach's $\alpha = .787$
: 지식(5점 척도 8문항) Cronbach's $\alpha = .715$
: 예방활동(5점 척도 12문항) Cronbach's $\alpha = .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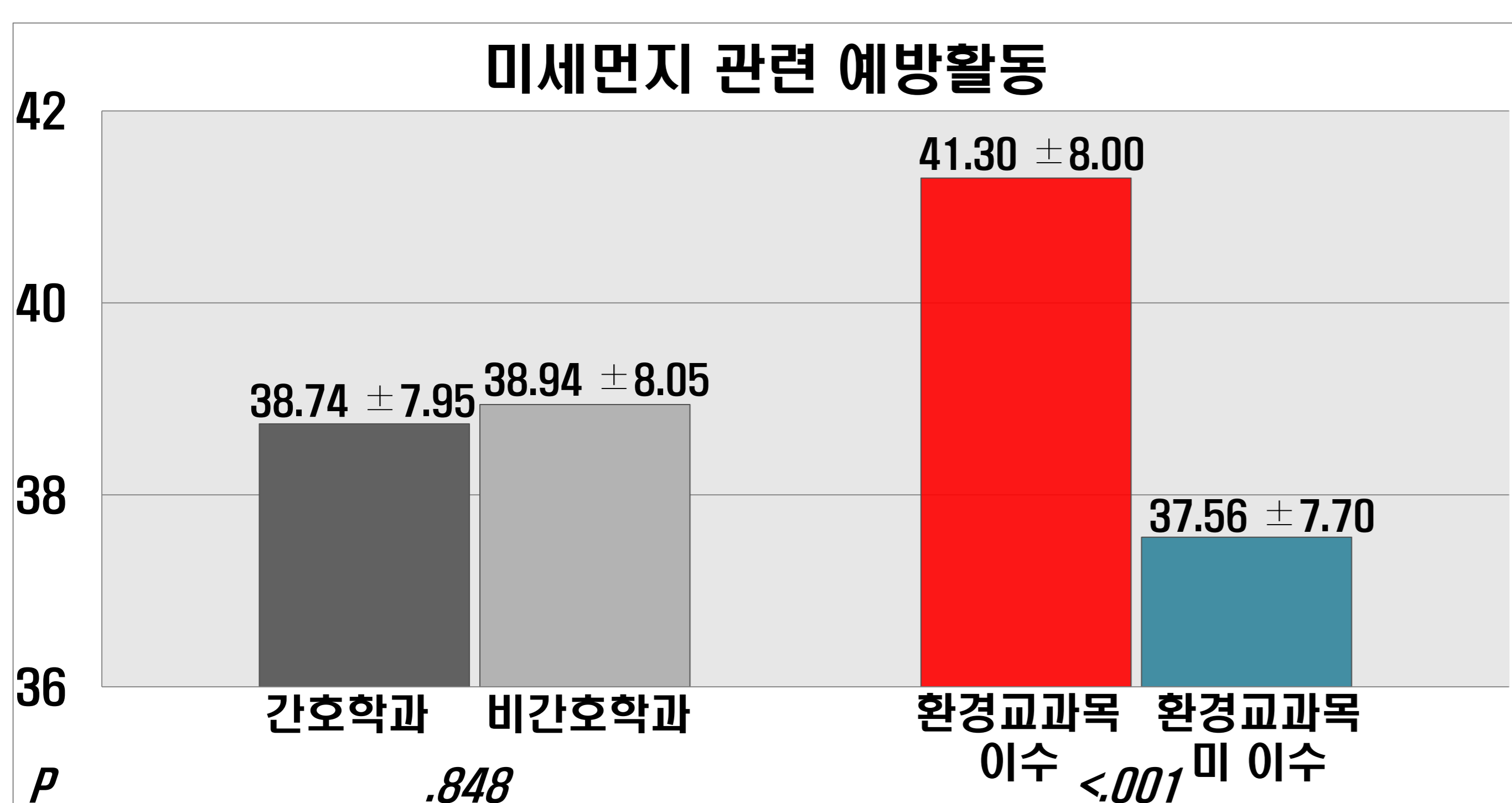
4 연구결과



- 환경교과목 이수 학생 평균: 52.49(±5.91), 미 이수 학생 평균: 49.97(±7.21)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t=2.790, p=.006), 간호학과와 비간호학과의 인식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남



- 환경교과목 이수 학생 평균: 29.83(±4.77), 미 이수 학생 평균: 26.78(±4.27)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t=5.147, p<.001)



- 환경교과목 이수 학생 평균: 41.30(±8.00), 미 이수 학생 평균: 37.56(±7.7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t=3.611, p<.001)

<미세먼지 관련 인식, 지식 및 예방활동의 상관관계>

변수	인식	지식	예방활동
	r(p)	r(p)	r(p)
인식	1		
지식	.664 [<.001]	1	
예방활동	.399 [<.001]	.452 [<.001]	1

- 인식과 지식(r=.664, p<.001), 인식과 예방활동(r=.399, p<.001), 지식과 예방활동(r=.452, p<.001) 간의 유의하게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

5 논의

1. 비간호학과 학생들은 환경 및 건강과 관련된 관심도가 약한 상태에서 환경서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간호학과에 비해 인식이 낮음.
2.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학생들의 환경지식 함양에 영향을 주고 있음 [교육 후 예방활동이 61.4% -> 66.6%로 증가].
3. 미세먼지와 관련된 인식 및 지식이 높으면 예방행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6 결론 및 제언

1. 간호학과 대학생이 비간호학과 대학생에 비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환경서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미세먼지 관련 인식이 높게 나타남**
2. 환경교과목을 이수한 대학생의 미세먼지 관련 인식, 지식, 예방활동이 모두 높으므로 **환경교과목을 이수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을 함**

■ 미세먼지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함

■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교의 환경교과목 개설이 필요함을 제언함